

백두대간 마루금에 위치한 노치마을 노거수 자원의 생태·문화적 가치

Eco-cultural Values of Old and Big Trees in the Nochi Village belonged to the Baekdoo-daegan's Ridge

박종민¹ · 박성학²

¹전북대학교 산림과학부, ²전북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I. 연구목적

농산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많은 농산촌 마을에서 폐가옥이 많아지면서 마을의 환경이 나빠지고, 전통적인 생태적 및 문화적 모습과 유산들이 변질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의 심화와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탈출하여 농산촌에서 아늑한 휴식을 취하고 생태적 및 전통문화적 체험을 얻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산촌 마을의 가치평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산촌마을에 대한 자원과 가치평가를 통해 마을을 정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 마루금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마을인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을 대상으로 생태문화적 가치를 조사 평가한 연구의 일부이다.

II. 연구방법

마을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 마을 안에 있는 느티나무, 죽나무, 쉬나무 등의 노거수를 대상으로 생육상태를 실측하였다. 이 노거수들의 문화적 및 생태적 가치와 활용성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노치마을의 입지

(1) 지리적 위치

북동쪽은 운봉읍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고기리, 서쪽은

회덕마을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노치마을은 해발 500m의 고지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마을 앞로는 원평들의 평야가 펼쳐져 있다. 서쪽에는 구룡폭포와 구룡치가 있으며 뒤에는 덕음산이 있고 앞으로는 지리산의 관문이라고 하는 고리봉과 만복대가 위치하고 있다. 마을 이름도 구룡치를 끼고 있어 노치(蘆峙)라고 하였는데, 또 다른 이름은 산줄기의 높은 곳이 갈대로 덮였다 하여 “갈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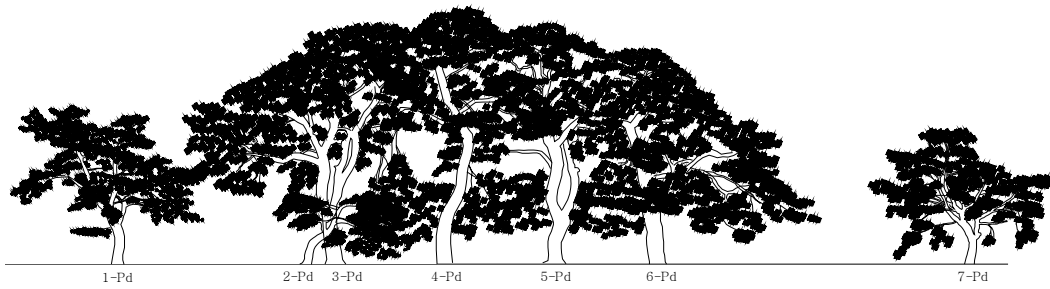
(2) 전통 생태문화마을로서의 입지

노치마을은 조선 영조(1725~1776) 때 신경준에 의해 우리나라의 강줄기를 기준으로 산줄기를 나눈 산경계보인 『산경표(山經表)』에 수록된 “백두대간”의 남쪽 끝자락 마루금에 물려 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산줄기로서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을 통과하는데, 마루금에 물려있는 삶터는 이곳 노치마을이 유일하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통지리 개념을 근거로 한 산줄기(산경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백두대간의 탐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백두대간의 마루금에 물려있는 유일한 마을인 노치마을은 백두대간 탐방자들이 거쳐가는 길목으로서 생태적인 가치와 의미가 크다.

2. 전통문화

(1) 당산제

당산은 마을 뒷산의 큰당산인 소나무와 마을 안의 작은당



노치마을 뒷 당산 입면도

그림 1. 노치마을 큰 당산인 소나무 노거수의 분포도

산인 느티나무 노거수이고, 당산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에 지냈으나 현재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 지낸다. 정갈한 주민으로 제관을 삼아 당산제를 지낼 때까지 금기하고, 마을 샘물(노치샘)로 음식을 장만하여 지낸다. 제관은 의관을 갖추고 제를 올리며, 제는 큰당산에서 먼저 지내고 작은당산은 나중에 지낸다.

불꽃이 노랗고 밝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80여년 전에 유복수 씨의 할머니가 때죽 열매 수확의 수고를 덜고자 때죽나무 1그루를 담장에 심어 때죽을 수확하곤 하였는데, 그 나무는 지리산 빨찌산 토벌시에 마을이 모두 불타면서 함께 타서 원줄기는 죽고, 지금은 맹아가 자라서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고 있다.

2. 생활 속의 전통 산림문화

(1) 때죽나무 기름으로 접식불 켜기

등잔불을 켜기 전에는 가을걷이가 끝나면 마을 아낙들이 먼 지리산 언저리까지 나가 때죽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기름을 짜 접식불을 켜는데, 때죽의 기름은 연기가 나지 않고

(2) 쉬나무 기름으로 머리 빗기

산골 마을이라 동백기름 구하기가 어려워 부녀자들이 머리를 빗을 때에 동백기름 대신 쉬나무 기름을 사용하였는데, 가을걷이가 끝나면 마을 아낙들이 먼 지리산 언저리까지 나가 쉬나무 열매를 수확해서 기름을 짜 사용하였다 한다. 유복수 집 담장에 노거수로 자라고 있는 쉬나무도 때죽

표 1. 노치마을 소나무(큰당산) 노거수의 생육 및 지리적 현황

번호	추정수령	생육 현황						지리 현황	
		수고 (m)	지하고 (m)	흉고둘레 (cm)	근원둘레 (cm)	수관폭(m)			
						EW	SN		
T1	150	9.5	1.9	61	62	12.1	12.4	유형	Co
T2	120	3.6	3.0	42	50	13.2	12.6	위치	G.H
T3	400	14.2	6.2	86	102	16.0	16.6	면적(m ²)	1,569
T4	400	14.9	3.4	80	96	18.3	16.2	해발(m)	590
T5	400	13.6	3.5	84	99	14.4	14.6	경사(°)	2~10
T6	400	13.7	2.1	100	122	14.2	19.2	경도(mm)	16~24
T7	130	8.6	2.6	47	64	13.7	11.1	좌표 N	35°24'13.3"
T8	400	고사						E	127°30'01.4"

표 2. 노치마을 안 노거수의 생육현황

수종	추정수령	수고 (m)	지하고 (m)	흉고둘레 (cm)	근원둘레 (cm)	수관폭(m)		비고
						EW	SN	
느티나무	600	16.8	3.4	146	184	17.9	18.7	작은당산
때죽나무	80	4.9	1.8	19	39	7.6	3.2	
쉬나무	80	9.3	2.8	26	52	7.3	7.1	

나무와 같은 연유로 심어져서 수령은 약 80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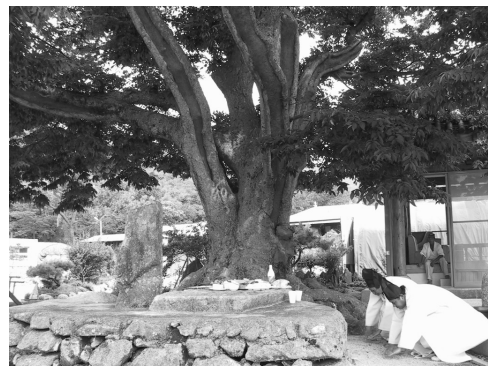
3. 노거수 자원의 보호 및 활용방안

현재 큰당산인 마을 뒷동산의 소나무 노거수와 작은당산인 느티나무 모두 보호수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노거수들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을의 당산으로서 잘 보호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침

해를 받지 않는 보호수로 지정하거나, 주변 토지까지 매입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마을은 백두대간 마루금에 속해 있는 유일한 마을이고, 이들 노거수 자원을 근간으로 한 전통문화도 전승되며, 일제 때에 백두대간 마루금을 훼손하고 맥을 끊기 위해 설치했던 목뼈 조임돌 등의 유물도 보존되어 있으므로, 마을의 빈집과 폐가 터 등을 잘 정비하여 백두대간 문화생태마을로 육성할 충분한 요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큰 당산에서의 당산제



작은당산에서의 당산제